

법랍·소임·행적따라 다르게 불러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9. 구생신(俱生神)은 누구?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무량수경>이 극락정토의 경전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익해야 할 것은 이 경전이 정토 신앙을 설하는 만큼이나 오악악세의 악업과 미혹을 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량수경> 하권의 '오악단(五惡段)'에 집중되어 있는 인간의 악과 사대(四時)에 대한 사실적인 비판은 시대와 국기를 초월한 실존적 인간 응시가 담겨있다.

<무량수경>에서 설하는 인간의 오대악(五大惡)은 살생·절도·음란·거짓말·탐식이다. 또한 신명(神明)과 대자연이 인간의 모든 악행을 살피고 적어서 죄업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신명이 살피고 기록하며(神明記識), 천신이 그 자취를 살피고 그 이름을 적는다(天神記識, 別其名籍)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악행을 살피고 적어서 죄업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구절도 그렇지만 인간의 선과 악의 과보는 "자연의 이치가 행한 바 그대로 응한다(數之自然 應其所行)"고 적고

모두 갖추어 기록하여 염마법왕(摩法王)에게 바치면 왕은 그 사람을 심문하여 죄와 복의 양을 따라서 처단한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불교 경전이 설하는 구생신, 당신의 도플갱어, 까르마의 목격자는 민간신앙과 뒤섞인 불교가 아니라 그 연원이 깊다.

그렇다면 구생신 이야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인간의 모든 행위에 의해서 다음 단계의 존재 방식이 나뉘는다는 생각은 베다는 물론 조로아스터의 아베스타에도 기원이 있는 이야기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시대 이집트 동서양에 널리 퍼졌다. 몽고와 북미 인디언들에게는 구생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몽고에는 산에서 양을 치다가 자신의 모습이 황무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곧 집으로 돌아와 죽었다는 이야기가 흔하고, 북미 인디언들은 달리기를 할 때 자신의 도플갱어, 즉 구생신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자주 뒤돌아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이 위경으로 규정된 <바오로 계시록>에는 불결한 무리들에게 지정된 천사와 정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가 사람들마다 있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구생신 이야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 불교의 경우 구생신의 기록에 의한 사후의 심판은 지장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명부전에는 세속의 사법정치의 똑같은 형태로서 사·판관 등이 봉안되어 있으며, 사자의 생년과 사후기일에 따라서 재판을 분담하는 시왕이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옛 한국불교의 선지식이나 중국의 정토사상가들은 <무량수경>의 '신명기식', '별기명적'의 실제에 대해서 두 유형으로 해석해 왔다. 신라의 경흥 스님과 같이 신명을 제8아뢰야식 연기론으로 본 유식불교계통의 정토사상가들과 중국의 길장처럼 구생신으로 본 삼론종 계통의 불교가 있다. 제8아뢰야식, 여래장식이라고 부르며 종자의 혼수와 전환의 성질 남(同名)은 선업을 기록하여 사천하의 선신이 한담에 여섯 번 그 이름과 자취를 기록하여 저승의 신, 아마 여계 주상한다고 한다. 또한 현장 삼장이 한역한 <약사여래본원공덕경>에서도 '모든 중생들에게는 구생신이 나타나, 중생들이 짓는 죄와 복을

경학회 회주



참물자의 길

스님들의 호칭

스님·승려·화상·사문, 대덕·대사, 주지·회주·조실·방장, 선사·종사·율사·법사...

이 같은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스님을 부르는 호칭들이다. 법랍이나 소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불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생겨난 것이다.

우선 스님이란, 출가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스승님'의 준말이란 설도 있고, 승가의 준말(승)에 존칭어미 '님'자를 붙여 승님이라고 하던 것이 변했다는 설도 있다.

이런 내력을 가진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에는 화상(和尚), 사문(沙門), 대덕(大德), 대사(大師) 등이 있다.

그중에서 '화상'은 스승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서 원래는 스님들이 평생 가르침을 받은 자신의 은사 스님들에게 부른 호칭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덕높은 스님들을

칭하는 말로 바뀌어 사용됐다. '사문'은 본래 '쉬라마나(saramana)'라고 해서 바라문교에 대응하던 인도의 세로운 사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던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문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훗날 불가에서 출가 수행자를 일컫는 의미로 굳어졌다.

고려 광종때 국가에서 실시한 승과제도에서 선종의 대선에 합격한 스님들을 대덕, 대사, 종사 등으로 불렀는데 요즘에는 덕이 높은 큰스님을 대덕으로, 크게 깨우쳐 불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스님을 대사로 칭한다. 특히 조정에서 고승에게 내리는 호를 대사로 하기도 하는데 조선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 대사가 바로 이에 속한다.

행적에 따라 부르는 말에는 조사(祖師), 종사(宗師), 선사(禪師), 율사(律師), 법사(法師) 등이 있다. 조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써

터 법맥을 이어받은 덕이 높은 스님을 말한다. 다시 말해 1종(一宗) 1파(一派)를 세운 스님을 일컫는다. 고려시대 구산선종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한 도의 선사 같은 분이 이에 속한다.

종사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고승을 일컫는다. 대승의 법을 전하는 고승을 일컫는다.

방장-총림의 어른

율사-계율 연구

수좌-참선하는 스님

승이나 선종(禪宗)의 종지를 이어 온 스님을 비롯해 학덕이 높은 스님들을 가리킨다. 또 선사란 오랜 선 수행으로 선리에 통달한 스님을 일컫으며, 율사는 전문적으로 계율을 연구했거나 계행이 철저한 스님을 말한다. 사찰과 선원에 있는 스님들을 부



그림·최주현

르는 호칭도 각기 다르다. 방장(方丈)은 한 사찰의 최고 지도자로서 보통 불교교단의 '총합 수도원'이라 할 수 있는 총림의 어른을 칭한다. 또 법회를 주재하는 스님을 회주라고 하며, 선원의 최고 율사(律師)를 조실이라고 한다. 이밖에 수도좌(首座)는 선종의 승당에서 거거하는 대중의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좌원(座元)·선두(禪頭)·수중(首衆)이라고 병용해서 부르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선원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을 말한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모신 스님들을 국사, 왕사, 제사라 했다. 이렇게 스님들을 부르는 명칭을 정확히 알고 행적과 법랍에 따라 알맞게 호칭하는 것도 불자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김주원기자 jkim@buddhapa.com

인간의 모든 행위

감시하고 기록

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모든 행위가 구생신(俱生神, Saha-deva)에 의해서 감시되고 기록되며 세 육과 극락, 천당과 연옥, 지복의 세계로 나뉜다는 것이다. 구생신이란 바로 당신의 도플갱어(Doppelgänger)이다. 도플갱어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화신이자 분신이며 행위의 감시자이다. 즉 나와 함께 가는 것'이며 바로 까르마의 도플갱어인 것이다.

<무량수경> 뿐만 아니라 여러 불교 경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구생신의 존재를 설하고 있다. <60화엄경> 입법계품을 보면, 일체중생에게는 두 신이 있어서 우리의 오른 쪽 어깨 위에 있는 동생녀(同生女)는 악업을 기록하고, 왼쪽 어깨 위에 있는 동명남(同名男)은 선업을 기록하여 사천하의 선신이 한담에 여섯 번 그 이름과 자취를 기록하여 저승의 신, 아마 여계 주상한다고 한다. 또한 현장 삼장이 한역한 <약사여래본원공덕경>에서도 '모든 중생들에게는 구생신이 나타나, 중생들이 짓는 죄와 복을



禪과 21세기

"매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 지 모르겠군요? 만약 일찍이 이성(理性) 위에서 재미를 얻은 적이 있거나,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재미를 얻은 적이 있거나, 조사의 말마디 위에서 재미를 얻은 적이 있거나, 논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재미를 얻은 적이 있거나, 발을 들고 걸음을 옮기는 곳에서 재미를 얻은 적이 있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재미를 얻은 적이 있다면, 이 일에는 전혀 슬프거나 없습니다."

만약 공부로 쉬고자 한다면, 앞서 재미를 얻었던 곳에는 조금도 상관하지 말고, 도리어 불집을 것이 없는 곳과 재미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한 번 해아러 보십시오. 만약 해아러 수도 없고 불집을 수도 없다면, 이치의 길과 뜻의 길에 심의식(意識)이 전혀 통하지 않음이 마치 돌맹이 나루 조각과 같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 때에는 공(空)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장' 통한 선 공부 36

왕교수(王教授)에 대한 답사

선공부...의식의 주인되는 것



김태완 부신대 강사·철학

시오. 이곳이 바로 자신이 목숨을 버릴 곳입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흔히 총명함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도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 접촉하는 곳마다 막히게 됩니다. 중생은 아득한 옛부터 심의식(意識)에게 부림을 당하여 생사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진실로 생사에서 벗어나 깨달게 되고자 한다면, 모를지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심의식의 길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도(道)에 들어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뜻으로서 아는 것 즉 의식(意識)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태어난 이래로 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의식이 부리는 대로 따라다니며 온갖 번뇌와 갈등을 겪는다. 선공부의 결과는 이러한 노예의 처지

를 극복하고 오히려 의식을 자유롭게 부리는 의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의식의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의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기를 파악함으로써 의식을 지배할 수가 있다. 의식의 정체를 모를 때에는 의식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 수밖에 없지만, 알고 나면 의식이 저절로 항복해 오니 더 이상 의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의식의 정체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의식에 의지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늘 의식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 순간 순간의 삶이 의식에 의지하여 유지되므로, 한 순간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의식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선(禪)이나 도(道)나 공부에 대한 모든 개념과 견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과감히 버려야 한다. 아무리 확고하게 옳다고 여기는 견해라 하더라도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또 선공부의 결과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예상도 두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므로써 내면적으로 철저히 가난해져야 한다. 스스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두렵게 느낄 정도까지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견해를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버려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서 마음이 마치 의지할 수 없는 허공처럼 되면,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허공이라는 견해를 지어주어도 안 되고, 그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어떤 관념이나 견해에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와 같이 대상에 머물지 않음이 충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의식을 지탱해 주는 바탕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이 바탕은 비록 의식과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던 의식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경험을 하고 보면, 이제까지 의식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의식은 겉으로 드러난 허깨비이고, 오직 진실한 것은 이 바탕일 뿐임을 알게 된다. 드디어 의식에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다. http://www.mmdfree.net/

특허 "BBS 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탕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울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 추동복: 촉감이 매우 좋고 뱀지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함.
- ◆ 누비: 고급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마,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 장삼: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 ◆ 가방: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비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마	남·여	130,000
	동방	남·여	120,000
	상·하	남·여	190,000
누비	두루마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승가방	중	28,000	
	소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사: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불영 B/D 3F302호
 전화: 053)764-4114 H·P: 011)9850-4400

기원섬유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암작용의 성분인 신혈통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대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통(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향비와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혈통)에 찌는 것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넘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매달되는 증상에 () 미심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임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외유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뒷맛이 결코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력이 있는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온은 실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나포 감상순으로 고통을 당한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